



## 유나이티드 · 브랜드

# 現地反抗으로 흔들리는 바나나王國

이 동 원 역음

유나이티드 브랜드(United Brands Co)는 약칭 유니프루로 통해온, 바나나王國 유나이티드 프루우츠(United Fruit Co)의 후신.

4년전인 70년 식품업계의 복합기업으로 주목을 끌었던 AMK Corp.와 합병, 새 출발한 다각경영 기업이다.

현재는 食肉관련 제품이, 전체매상의 60%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바나나 생산판매로서는 여전히 세계 제일의 王國으로 군림하고 있다.

73년도 매상은 마침내 20억대를 넘어선 20억6천616만달러, 미국 대기업 순위 74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율은 50년대이후 줄곧 1%안팎의 낮은 수준(73년 순익 2천5백36만달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유나이티드 브랜드는,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끈질긴 기업으로 통한다.

그것은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황무지를 개척해 온, 유니프루의 강인한 개척根性を 이어 받았기 때문이다.

### 利權얻기 위해선 革命 조종도

유나이티드 · 브랜드의 주축사업은 연간매상 10억달러가 넘는 식육관련제품 생산. 72년도 실적(매상고 16억 6천832만달러, 순익 1천74만달러)으로는 식육 및 그 관련제품이 전체매상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자회사인 미국 제5위의 식육회사, 존 · 모렐社(John, morrell & Co)는 전국 13개 도시에 공장을 갖고 생육, 냉동육 및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식육에 이은 바나나는 매상액의 2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규모로 따졌을때

의 이야기.

연간매상 5억달러를 헤아리는 엄청난 사업이다. 바나나 부문은 비록 매상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유나이티드 · 브랜드를 상징하는 간판 상품이 되고 있다.

혼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등지에서 재배된바나나는 거의 미국(44%)과 유럽(45%)에 수출되고 그밖의 지역으로는 일본(6%)등지에 소량이 나가고 있다.

전체 매상의 24%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도 거의 이 바나나 판매에서 얻어진다.

그렇다고 바나나 사업이 순탄한것은 아니다. 자립 경제를 지향하는 현지 정부와의 끊임없

는 마찰로 경영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나나 재배에 매력을 잃은 유나이티드·브랜드는, 72년 12월 과테말라 바나나 부문을 미국식품회사 델·몬테(Del monte)에 2천만달러로 팔아 넘기기도 했다.

카리브해연안,中南美제국의 주요수출 상품인 바나나 利權은 유나이티드·브랜즈, 스탠다드·프루우즈, 델·몬테등 몇개의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지 정부와의 알뜰도 십십치 않게 일곤 한다.

최근엔 스탠다드·프루우즈社가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혼두라스등, 3개국 정부 전복을 음모 했다는 혐의로 크게 말쟁이 되고 있다.

이번 말쟁은 스탠다드·프루우즈社가 현지 바나나 利權을 보호하기 위해 혁명적인 반정부세력을 무력 지원,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것이다.

미국 바나나 자본이 개입한, 정부 전복음모 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지로 특정 미국 기업이 개입하여, 자기구미에 맞는 혁명 정부를 세운 일화는 적지 않다.

이런 바나나 利權에 얽힌 혁명에中南美 진출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니프루가 빠질리 없다.

1954년에 일어났던 과테말라 혁명은 유니프루의 농지 보상문제가 도화선이 된 정변으로 유명하다.

### 黃金時代 이룩한 怪物 제무레이

미국인이中南美에 처음으로 바나나 재배단지를 개발한 것은 1878년의 일. 당시 갓 독립한 코스타리카에서 었다.

이 무렵의中南美 각지는 2차대전후의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탈바꿈 한 때였다.

미국인들은 코스타리카에 바나나 단지를 조

성했고, 미국 자본으로 철도와 제당, 제유공장등이 세워졌다.

미국 개척상인들은 코스타리카에 이어 과테말라, 도미니카, 니카라구아, 혼두라스, 콜롬비아등지에도 진출, 이 지역 최대 利權인 바나나 재배로 뿌리를 심어갔다.

1890년대 카리브해 연안에 대규모 바나나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을 주름잡던 대표적 기업의 하나가 보스턴 프루우즈社.

이때는 미국인들이 제 각기,中南美에 진출 심한 경쟁을 벌여온 때이기도 하다.

유니프루는 이 보스턴·프루우즈가 주축이 되어 바나나 재배무역 6개사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해운, 통신 사업을 벌여온 관련 3사를 합병, 발족한 기업이다.

바로 美, 스페인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99년의 일이다. 이렇게 발족한 유니프루는 계속中南美에 진출한 그 밖의 미국기업들을 차례로 흡수하면서 비대해져 갔다.

유니프루의 초대 사장은, 합병의 주역이었던 보스턴·프루우즈의 창업자 안드류·프레스톤이 맡아 그 기초를 닦았다.

특히 유니프루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가 있다.

유니프루의 황금시대를 이루어 놓은 4대사장(1938~1951년) 사무엘 제무레이가 그 장본인.

러시아 移民의 아들인 제무레이는 고향인 알라바마州 모빌港에서 바나나 중매인으로 이 길에 첫 발을 들여 놓았다.

바나나 사업에 익숙해지고 어느정도 자금이 마련 되자, 그는 1차대전이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두라스에 건너갔다.

유니프루등, 대 기업들의 뒤를 이어 노다지 바나나 재배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었다.

혼두라스는 지금도 정변이 심한 곳이지만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특히 민족항쟁이 두드러진 나라이다.

제무레이는 혼두라스에 발을 붙이긴 했으나 사소한 일로 정부 지도자들과 반목이 생겨 그의 바나나 재배원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다

제무레이는 이 정도의 일로 쉬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곧 앞서 일어난 혁명으로 이웃나라 엘살바도르에 망명중인 전대통령과 접선 바나나 재배원 인가를 조건으로 현정부 전복지원을 약속했다.

제무레이는 지체없이 미국에서 다량의무기를 구입하여 혁명군을 지원 집권케 하는데 성공했다.

怪物 제무레이의 바나나 재배원은 약속대로 혁명정부에 의해 인가됐다.

이정변은 바나나업자가 혁명을 조정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혼두라스에서 기반을 닦은 제무레이도 이미 대 기업으로 성장한 유니프루와의 경쟁에서는 고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는 혼두라스의 바나나 단지와 모빌港의 중간상인들을 묶어 쿠야넬, 프루오즈社를 설립, 이에 맞서기도 했으나, 1929년 끝내 유니프루에 굴복 회사를 넘겨주고 말았다.

목적달성을 위해선 혁명 조종 마저 서슴치 않는 억척같은 제무레이가 바나나 사업을 완전히 버릴리가 없었다.

충분한 대금을 치뤄 받은 그는 다른 자금까지를 긁어 모아 곧 유니프루의 株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반년도 못되어 제무레이는 유니프루의 大 株主가 되었고, 사장 자리를 차고 들어 앉는데 성공했다.

4대 사장이된 제무레이는 그 비법한 사업수완으로 유니프루를 이끌어 오늘의 바나나 王國이로 키워 놓았다.

### 追放者로 轉落한 神의 使者

中南美에서 황금시대를 이루었던 미국 바나나 업자들도 2차대전 후에 붙어닥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거센 바람속에 점차 서리를 맞기 시작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이루고, 설탕과 식용유공장, 그리고 철도와 병원, 학교등을 건설하여 「神의 使者」로 자처하던 미국 자본은 현지민들의 자각과 함께 추방돼야 할 경제침략자로 전락하기 시작한것이다.

이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에 부채질한 사건의 하나가 미국의 조종으로 1954년에 일어난 과테말라 혁명이다.

이보다 2년앞선 1952년 6월, 토지의 태반을 인구 2%의 대지주들이 차지한 과테말라에 봉건제도 개혁과, 민주주의를 내건 혁명이 일어났다.

정권을 잡은 구즈만 대통령은 곧 농지 개혁을 단행, 유니프루를 비롯한 대 지주의 토지를 헐값에 접수하여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특별 조치를 단행했다.

유니프루소유의 41만4천에이커에 이르는 농토와 부속시설 일체에 61만 달러라는 말도 안되는 헐값이 매겨졌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연 3%이자에 25년분할 상환한다는 일방적인 접수 결정이 통고된 것이다.

이에 당황한 유니프루의 본국 정부 설득과 함께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이 사태에 개입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재산 집수의 댓가로 1천5백5만 4천8백49달러를 지급하도록 콰테말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구즈만정부에 보기 좋게 묵살됐다.

이유는 私企業과의 분쟁에 미국 정부가 나설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 외에도, 외교 절충이 묵살된것에 대한 강대국으로서의 대외체면도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무렵 혼두라스에 망명중인 반 구즈만 지도자 알마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풍설이 나돌았다.

얼마후 콰테라엔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났다. 1954년 알마스 혁명군에 의해 구즈만정부는 맥없이 전복되고 말았다.

이 혁명으로 유니프루는 콰테말라에서의 권력은 되 찾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들이킬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됐다.

그 후 부터 中南美 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현지민들로 부터 더 한층 노골적인敵으로 대접받게 되어 기업경영은 더욱 어려워져 가기만 했다.

미국 기업들은 고율의 특별 소득세도 현지 자본 업체보다 높은 코스트로 생산품을 출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바나나 황금시대에 막이 내리기시작한 것이다.

흑인 노무자들이 부르는 애환서린 바나나보오트 송의 비애는 이제 유니프루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내리닥친 것이다.

### 複合企業으로 脫皮에 안간힘

액면 1달러의 유니프루 株當이익 배당도 전

성기인 1950년의 7.5달러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 1963년의 6센트로까지 폭락했다.

그것도 자산처분 수입으로 충당하는 파산직전의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의 유니프루는 바나나 품종개발과, 토머스, E 선덜란드 및 존·M·폭스와 같은 유능한 경영자를 맞아 바나나 사업은 다시 호서를 보이기 시작했다.

69년에는 주당 배당금은 2달러9센트로 2달러 70센을 넘어섰고 20년에는 2달러70센트로 향상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70년에 실현을 본 AMK Corp 와의 합병이다.

유나이티드·브랜드는 현재 식육, 바나나등 주력상품외에, 아이스크림(Basikin Robbins)과 프란차이즈방식의 일용품 연쇄점 운영, 모넬, 햄버거, 드라이브인(A&W International)해운시설, 통신업무 등, 복합기업으로 탈피하고 있다.

72년 10월에는 신그라스와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메이커인, 포스타, 그랜드社(Forste Grant Co) 주식 30%를 사들이는 등,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71년에는 169만달러의 결손을 냈고, 72년에는 16억6천832만 달러 매상에 겨우 1천74만달러의 이익을 올린데 불과하다. 이해의 株 배당도 1달러가 안되는 80센트를 기록했다.

73년도 수익률은 전해의 0.9%에서 1.2%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이 기업은 저조한 생산성과 수익률로 계속 고전을 겪고 있다.

일본에는 유나이티드·브랜드가 83.2%출자하고, 나머지는 미즈비시 商事등 현지 자본이 공동 출자한 極東 프루우즈를 설립, 진출하고 있다. 사장은 E.M. Black.

종업원 6만 1천명이다.